

6. 부끄러워 감춰버린 홍감자를 찾아라. (울릉도 토종씨앗 수집기 (2))

전날 수집한 목록을 정리하고 이튿날은 조금 늦게 다시 학포로 향했다. 이곳은 조선 개척단이 처음으로 땅을 내디딘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조선개척단이 세운 첫 산왕각이 있는 곳이다. 울릉도에는 용왕신각 보다는 산신각을 찾기 쉽다. 지금도 남아있는 산신각이 열두 가운데 하나 됐다. 아마 조선시대 개척단은 물론 이주 이후 울릉도 사람을 지배해 온 신은 산신이었던 모양이다. 그만큼 산의 위용이 바다를 지배하고도 남았다.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절벽 같은 산이었다. 산을 넘어도 산이었고, 절벽을 오르면 또 절벽이었다. 산에서 땅을 내주지 않으면 밭은커녕 집조차 지을 수 없었다. 농사지으러 이주한 이들에겐 살 곳도, 사는 것도 모두 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산은 그들에게 절대적이었다. 이런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포에 있는 개척단이 만든 최초의 산왕각이다.

그렇게 학포 산왕각을 스치듯 지나 통구미에서 우연히 만난 울릉도 토박이 노점상에게서 들은 홍감자 이야기. '윗통구미 옛길을 따라가면 홍감자를 오랫동안 심어 온 사람이 있지 아마'라는 말을 지나듯이 전해주었다. 울릉도에서 그 정도면 GPS로 점을 찍어 줄 정도로 정확한 이야기였다. 울릉도에서 길을 묻거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몇 가운데 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쏠살같이(?) 차를 몰아 윗통구미 옛길을 따라갔다. 포장은 되어있으나 1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라도,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급한 커브 길이라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었다. 차가 거의 없으니 그렇다. 그렇게 한참을 가니 고개를 몇 구비 넘어 산꼭대기도 나오고, 드디어 첫 집이 나오는데, 사람은 온데간데없었다. 길 표시는 어긴 적이 없었지만, 길을 잘못 들어선 게 분명했다. 우리는 드론을 띄웠다. 무작정 갈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 드론을 띄워 지형을 살펴니 절벽 같은 고개 하나만 넘으면 산 중턱을 한 삽 정도 파놓은 듯한 찌그만 분지 위에 서너 채 농가가 보였다. 그곳이 바로 윗통구미였다. 이런,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랫통구미를 생각하고 윗통구미를 찾은 것이 잘못이었다. 위아래 차이가 이 정도인 줄은 미처 몰랐다.

비록 서너 집이었지만, 마을이 제법 짜져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행히 홍감자를 심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필요도 없이 길가에 홍감자가 널찍하게 심겨 있었다. 넓어야 200여 평 정도지만, 울릉도에서 이 정도면 큰 밭이었다. 밭에 딸린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홍감자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고, 그는 아주 빨리 응대했다. 우리를 이끌고 그의 홍감자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홍감자를 심는 기막힌 사연과 함께 그의 아픈 개인사가 담겨 있었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다. 그와 얘기하는 내내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조부를 비롯한 일가친척들은 1936년 일제가 유사종교 취체강화책이라는 명목으로 유사종교 해산명령으로 해산할 때 2차로 울릉도로 들어 온 보천교도였다. 보천교 등 많은 민족종교 단체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민족정신을 고취하자 조선총독부의 해산명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이후 민족종교는 신천지인 이상세계를 찾아 만주 등 한반도를 벗어나 이주하였다. 특히 천도교는 주로 만주로 가서 제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만주 지역에서 많은 민족종교의 터전을 만들었다. 일제 치하의 신지식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보천교도들은 이미 그전에 울릉도로 이주한 보천교도들이 있어서인지 만주보다는 울릉도에 신세계가 있다고 믿었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인 독도로 가려다가 거친 파도를 만나 울릉도에 조난당했다고도

한다. 그들은 울릉도로 집단이주를 단행하였다.
1928년 9월 12일 자 동아일보 기사다.

이 섬 백성들의 신앙 정도는 어떠한가. 기독교 신자 280명에 복마전의 보천교도가 568명의 절대다수라고 한다. 불교의 절이 한 곳 있는데 여승 2명만 있어 괴로운 섬에 한층 더 고적의 느낌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일게 하는데..."

1차 이주 후 당시 보천교도들이 울릉도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2차 이주는 국내의 보천교가 강제 해산되자 이렇게 1936년도에 이뤄졌다. 당시는 주로 가족 단위의 이주를 단행했는데, 이 책은 큰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 두 형제가 슬하 대가족 전체를 이끌고 이주하게 된다. 자급자족이 제일 우선인 그들은 일제의 물건을 먹지 않고 버텼다. 그때의 주식은 옥수수와 감자로 서로 의지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랐다. 다만 어머니가 작은 신단을 방에 모셔두고 아침저녁으로 비는 것은 가정이 무사하고 자식이 잘되라고 비는 비손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생산물의 첫 시식자는 바로 이 신단이었다. 울릉도에서는 식량이 옥수수와 감자였으니 신단의 차지는 늘 감자와 옥수수가 주를 이뤘다. 보천교는 하지 치성이 매우 큰 제사였고, 이때 때마침 처음 수확한 홍감자를 올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가 울릉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행인지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를 경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가 경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는데, 당시 박정희 정권은 종교 진흥법을 만들어 일제와 같은 논리로 보천교를 유사종교라 판단하고 미신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때였다. 미신이 마치 국운을 무너트리는 주범인 양 몰아붙였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울릉도의 신지식인이 되어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박정희 정권의 현대화 교육을 받은 그는 울릉도로 돌아와 보니 바로 어머니가 망국의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그는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신이 현대화로 가는 길목을 잡는 전근대의 유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많이 다투다. 설득도 했으나 막무가내였다. 현대화 시대를 이해 못하는 어머니의 무지라고 생각했다. 그 무지에 대해 어지간한 화는 다 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은 어머니가 신주처럼 모시는 소신단을 부수면 미신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없을 날을 기다려 소신단을 부숴버렸다. 산산조각을 내 불태워 버렸다. 어머니는 돌아와 이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쳐다보았다. 다행인 것은 그 뒤로 어머니는 더 이상 소신단을 찾지 않고 기도도 끝이 나버렸다. 그는 의기양양했다.

그렇게 매섭고 흉포하다는 일제도 막지 못한 그들의 신념을 배운 아들한테는 단번에 신념을 꺾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컸다. 어머니는 신념을 잃었고, 작은아버지는 배운 덕을 하려고 읍내로 내려가 대서소를 차렸다. 그의 가족들은 윗통구미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보천교의 가족 공동체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쓰임이 맞는 곳으로 떠나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울릉도의 보천교가 무너지는 과정을 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농사일을 택한 그는 신품종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어느덧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윗통구미에 홀로 남은 그도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돼서야 그의 가족사를 알게 됐고, 자신이 보천교 후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몰려왔고, 그는 항상 죄인처럼 어머니의 신위 앞

에 섰다. 그리고 그는 울릉도를 뒤져 홍감자를 찾았다. 소신단 앞에 놓인 홍감자와 옥수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마침 나리분지에 홍감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얻어온 것이 지금의 홍감자였다. 그 뒤 그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홍감자를 심어온다. 특산물화도 해 봤으나 생각만큼 홍보가 안 되어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씩씩하게 이야기를 맺었다.

우리가 홍감자를 찾으며 울릉도에는 홍감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과정에서 만난 농촌지도소장을 지냈다는 어느 선생을 만나면서였다. 그분은 울릉도 토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홍감자는 언제 울릉도로 들어왔는지 모르나, 원래 홍감자는 강원도를 통해 들어온 것과 울릉도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일본에 가서 들여온 홍감자 등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겉은 다 같이 붉은데, 찌고 나면 하나는 속이 노랗고, 하나는 속은 희다는 것이다. 누구는 속이 노란 게 울릉도 홍감자라 하고, 누구는 속이 흰 게 진짜 울릉도 홍감자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의 말도 모두 옳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또한 다 옳은 말이니 가릴 필요가 없다. 모두 어려운 시절 울릉도 사람들의 때로는 목숨을 지키는 목숨줄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이미 한통속이 돼버렸기 때문이다.